

행동하는 믿음 X 하나님께 걱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한나의 상황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엘가나로부터 브닌나의 갑절의 재정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다.

[사무엘상 1: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 한나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임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과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신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 **브닌나의 질투** -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자책감과 함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브닌나의 질투와 핍박을 받는 신세가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마음을 보라. 누구도 한나의 깊은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사무엘상 1: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나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지 못한다.

*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무엘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은 절벽에 있는 것과 같다. 방법이 없다.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뿐이다. 사실 기도도 잘 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나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걱정'이다.

2. 걱정

[사무엘상 1: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11절의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걱정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다. 그 마음이 절벽에 있는 상황과 같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나는 하나님께 걱정한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지만, 한나는 아이를 가진 것처럼 고백한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고백이 중요하다. 한나의 걱정은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꿈'이다. '꿈', '소망'이 있어야 한다. 소망과 꿈을 갖는 것을 부담스럽고 죄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꿈과 소망을 품을 때 성도들에게 있는 갈등은 이 '소원'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한다. 그 갈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 꿈과 소망을 품는 것 자체는 소중한 것이다.

(2) 꿈과 소망을 품었다면, 이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인 것을 명확히 하라.

꿈과 소망을 품을 때 드는 갈등은 두 번째 단계에서 해결된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가 걱정이다. 한나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말한다. 이 고백은 '나실인의 서원'이다. 걱정의 단계가 중요하다. 이 걱정의 단계는 내 안의 소망과 꿈을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 '발 구르기 판'과 같다.

*** 걱정 -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 (위키백과)**

걱정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마음을 먹는 일이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마음의 결단이다.

3. 걱정이 필요한 시대 - 마음먹기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다.

[로마서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은 추상적 영역이 아니다. 마음은 우리의 결정을 기다린다.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마음먹기란 '사명'과 같다. 사무엘의 운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이다. 사명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복을 주소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일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사명은 날마다 '마음을 먹는 일'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즉,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4. 마음의 상태와 결정은 다르다.

[사무엘상 1:15-16]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걱정된 상황을 보라. 16절처럼 여전히 그 마음은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걱정된 것이다. 준비되어서,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된 것이 아니다. 걱정은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마음의 상태는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 변한다. '마음먹기'란 마음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다.

5. 걱정엔 돌파가 있다.

걱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걱정은 막혔던 상황에 강력한 '돌파'를 만들어 낸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걱정의 기회'를 주셨다. 한나는 걱정으로 모든 막혔던 상황을 뚫어 내었다. 걱정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움직이자.